금 펀드·ETF 수익률 '고공행진'

금 한 돈, 소매가 41만원선 돌파
금리인하 등 연말까지 강보합 전망
"일시적 되돌림 약세장 주의해야"

최근 국제 금 가격이 최고치를 경신하며 한 돈에 41만원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진열하고 있다. /뉴시스

금값의 고공 행진이 이어지면서 금에 투자하는 펀드·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급상승하고 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존재하는 만큼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인 되돌림 약세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 금 펀드 약 37개 가량의 한 달 평균 수익률은 12.57%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수익률이 0.68%에 그쳤지만 근래 들어 금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관련 펀드들의 수익률도 크게 오른 모습이다.

세계금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지난해 금 매수는 총 1037톤으로 전년보다 4% 감소했다. 하지만 2022년 1082톤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금 매입량을 보였다. 올해도 금 선호가 유지된 만큼 금값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한국표준금거래소 기준 금 한 돈(3.75g) 소매 가격이 41만원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한 달 전 37만1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약 10% 이상 오른 셈이다.

더불어 국제 금값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1일 (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259.17달러까지 솟구치며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금값 폭등의 원인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꼽힌다. 이로 인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에 대한 투자 심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게다가 시장에서 오는 6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자가 없는 금에 투자 매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진영 대신증권 연구원은 "연준의 6월 이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며 "이를 선반영하려는 명목금리의 하락은 실질금리와 역의 상관관계인 금투자에 매력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 가격의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단기간에 급격한 오름세를 보였던 만큼 일시적인 가격 조정, 약세장 등이 펼쳐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전규연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은 연말까지 강보합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나, 현재 가격은 밴드 상단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 단기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6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면 미 달러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이 유효하겠지만, 그 폭이 크지 않고 경기 침체 우려도 제한돼 금 가격이 일방적으로 오를 장세는 아닐 것"이라고 진단했다.

단, 금값의 조정 시기를 이용해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황병진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인 금 가격 조정은 장기 투자 비중확대를 위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평가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中 경기회복 기대감… 화장품 대장주 '고개'

유커 증가… 업계 전반 실적개선 전망
아모레퍼시픽·LG생건 주가 6% 급등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었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과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화장품 대장주인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각각 전 거래일보다 6.34%, 6.58%씩 상승했다. 이외에도 토니모리(13.52%), 코스맥스(8.24%) 등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국의 화장품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36.2%(약 15억1500만달러) 증가했다. 특히 중국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17.7% 늘어나 1위를 차지했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의 귀환과 함께 화장품업계의 개선이 예상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2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34만4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동월 대비 76% 수준까지 회복됐다.

배송이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올해 1분기 LG생활건강은 시장 기대치를 소폭 상회, 아모레퍼시픽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전망"이라며 "대중국(면세·중국) 실적이 우려 대비 선방하면서 고마진 채널인 면세의 성장과 중국 적자 축소 효과로 인한 수익성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면세 시장은 전년 동기보다 10% 상승하면서 오랜만에 성장을 시현할 전망이다. 또한, 중국 현지의 1~2월 누적 화장품 소매판매도 전년 동기보다 4% 성장했고, 38부녀절 행사도 작년보다 추세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했다.

배 연구원은 "수요가 나쁘지 않은 가운데, 브랜드별 제품 전략 성과도 기대된다"며 "이번 분기 리뉴얼 및 신제품 수요가 일부 반영됐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이 추세적으로 확인된다면 브랜드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도 완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신하은 기자

예탁원, 적격외국금융회사 안내자료 발표

"한국 국채 등 투자수요 확대 기대"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법인의 적격외국금융회사(QFI) 승인 신청 및 운영 안내자료'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자료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국채 등에 투자할 경우 비과세 업무를 처리하는 QFI를 위한 실무지침서다.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QFI를 통한 국채 등 투자소득 비과세 도입 후 외국금융회사는 높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문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QFI 신청·승인·운영·업무처리 등 외국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약 4개월에 걸쳐 준비했다.

예탁원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외에서 QFI를 통해 편리하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해져 한국 국채 등에 대한 투자 수요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하이투자證, 조직개편… '리테일·PF' 강화

성무용 신임대표 체제 첫 개편
미래혁신단·PF금융단 신설

하이투자증권 전경.(원형사진) 성무용 하이투자증권 대표 /하이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이 조직 쇄신과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섰다.

하이투자증권은 성무용 신임 대표이사 취임 이후 변화와 쇄신, 리테일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변화혁신과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을 위해 경영전략본부 산하에 미래혁신부를 신설했다. 신속한 조직 진단과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처, 시너지 창출 추진 등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영혁신을 추진하여 회복성장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리테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직 쇄신을 단행한다. 조직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리테일총괄 산하의 본부를 수도권영업실, 영남영업실, 영업지원실의 3개실로 개편했으며, 유연하고 강한 리테일의 도약을 위해 임원진을 전면 교체해 리테일 영업의 혁신을 추진한다. 대면 영업과 비대면 영업의 유기적인 협조와 융합지원을 위해 디지털마케팅부와 투자솔루션부도 디지털솔루션부로 통합했다.

더불어 부동산 PF 관련 위기관리 강화를 위해 PF금융단을 신설했다. 프로젝트금융실 등 부동산 PF 관련 4실을 PF금융단 소속으로 배치해 부실 사업장의 재구조화 등 PF 위기를 유연하게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 PF 리스크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심사본부를 투자심사실로 변경했다.

성 대표이사는 "조직 쇄신과 혁신을 통해 당면한 경영 현안을 해결하고, 그룹 내 시너지 영업 활성화를 통해 하이투자증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한화투자證, 'K방산 기술혁신 펀드' 결성

한화그룹 협업… 차별화 운용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3월 29일 국내 유망 방위산업 기업에 투자하는 '한화-원익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 펀드' 결성 총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한화투자증권과 원익투자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주관하는 방산 기술혁신 펀드 2호 위탁운용사(GP)에 선정돼 425억원 규모 펀드 모집을 진행했다.

'한화-원익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은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기업 또는 방위산업 진출 희망 기업(출자약정액의 60% 이상 투자), 우수기술기업(투자집행 금액의 80% 이상 투자)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또 이번 펀드는 국내 최대 규모로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한화그룹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투자 전 기술검증을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펀드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한화-원익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 출자에 참여한 방산기술혁신 펀드는 방위사업청 주도로 조성된 방산 분야 최초 정책형 펀드로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자금 전담은행인 하나은행 출자로 조성된 펀드이다. 그밖에 우리은행, 경상남도,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캐피탈 등 주요 금융권과 지자체가 '한화-원익 K방산 기술혁신 투자조합' 출자에 참여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투운용,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 발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ETF를 활용한 반도체 투자 가이드북(사진)'을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 발간은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떠오른 반도체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한 반도체 산업 투자법을 설명하기 위해 제작됐다.

가이드북은 크게 세 가지 챕터로 나뉜다. 첫 번째 챕터 '반도체 산업 이해하기'에서는 반도체의 종류와 반도체 생태계,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 등을 전한다. 두 번째 챕터 '주요 반도체 기업'에서는 엔비디아, TSMC, ASML, 도쿄 일렉트론, 삼성전자 등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이자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총 11개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다룬다.

마지막 챕터는 '반도체 투자, ACE ETF'이다. 해당 챕터에서는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 ▲ACE AI반도체포커스 ETF ▲ACE 일본반도체 ETF ▲ACE 엔비디아채권혼합블룸버그 ETF 등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보유한 반도체 ETF 4종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도체 투자를 ETF로 하면 좋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신하은 기자